

매주 토요일마다 떠나는 테마 사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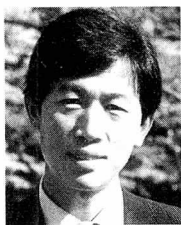
트래블리더 김 종 권 < 본회 대의원 >

스
의
와
행
의
경
관
에
서

「사진을 통해 보면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관광지도 꼼꼼히 살펴보면 나름의 멋을 갖고 있죠.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찾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됩니다.

사진과 여행을 겸하는 업체「테

마 사진 여행」대표 김종권씨(45). 올해부터 「사진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 업계에서 일한지 27년. 그는「우리 나라는 갈 데도 없고 볼 곳도 신통치 않다」며 외국으로 몰리는 여행객들이 늘 안타까웠다. 사진 여행은 그들이 무심히 지나친 자연경관과 문화 유적 속



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시작한 일.

여행 팀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서울

을 출발한다. 여행객이 5, 6명밖에 되지 않아도 일정을 취소하지 않는다. 문순화·남기일씨 등 유명 사진작가들이 동행하는 것도 자랑. 여행지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기 지도를 받는다. 전에 촬영한 작품에 대한 평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카메라는 필수 장비. 값비싼 고급품부터 염가의 자동 카메라까지 총동원된다. 참가자들은 20대 젊은이부터 가족단위 여행객까지 다양하다. 손주와 함께 온 할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도 있다. 멋진 가족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진을 찍어 주는 등 분위기도 좋다.

테마 사진 여행은 여느 모임과 다른 점이 많다.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는다. 버스에 동승한 모든 사람들이 한가족처럼 어울리게 하기

위한 배려 때문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여행 코스는 일출로 시작한다. 유달산·흑산도·하조대 일출 등 산 정상과 섬 바다에서 맞이하는 일출을 꼭 볼 수 있다. 운해 낀 산봉우리, 노을진 포구, 바람 부는 산성 등 자연과 조화된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한다.

김씨 역시 사진이 취미. 이제껏 4,500롤 정도의 필름을 썼다. 500여 개의 산과 70여 개의 섬이 그의 앵글에 잡혔다. 여행사에 근무할 때는 단체 관광이 없던 8년 전부터 선유도 보길도 등 섬여행을 기획해 바람을 일으켰다.

그의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은 개발로 사라진 많은 여행지들이 들어 있다. 언젠가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한국관광사」를 정리해 볼 생각이다.

앞으로도 사진을 배우고 싶거나 훌쩍 여행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해 한 주도 거르지 않을 생각. 사진 때문에 그의 여행은 항상 「기쁨 두배」다.